

# 담양군, '대숲맑은 담양쌀' 소비촉진 팔 걸었다

### '담양 쌀 소비촉진 상생협력 간담회' 열어 대응책 마련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12년 연속 선정...전방위 판촉

담양군이 쌀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힘이 되기 위해 '대숲맑은 담양 쌀' 소비 촉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담양군은 23일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 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 농민단체 대표, 지역 외식업체 대표 등과 '담양 쌀 소비촉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담양 쌀 소비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은 먼저 쌀 재고량 감소를 위해 추경에 4억1천만원을 확보해 '21년산 미국 재고에 판매 장려금을 지원, 올해 미국 수매에 대비하고 타 작물재배와 쌀 소비대책으로 쌀 수급 과잉에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타작물 재배는 7억8천만원의 군비를 지원해 올해 67ha에서 2023년에는 230ha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쌀 소비 패턴에 대응해 분절미 등을 이용한 빵, 디저트 등을 개발하여 커피숍과 제과점 등에 판매하도록 하고, 지역 외식업체 700여 개소에 담양 쌀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군은 앞서 지난 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 기업체, 향우, 자매결연기관단체 등에 담양 쌀 사주기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22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국고예산 확보와 더불어 쌀값 폭락에 따른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홈쇼핑과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활용한 판촉행사와 담양 쌀의 우수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TV에 송출하고 있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쌀 수확기에 접어들었지만 4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쌀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며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3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전문가들은 수년 안에 쌀 소비량이 50kg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비촉진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변화하는 쌀 소비 행태에 대응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구례군, 우리밀 제빵교육 도시재생 지역특화 추진

구례군은 성공적인 우리밀 빵 축제 개최를 위해 지난 21일 구례주조장 예술창고에서 제빵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은 9월 21일부터 주 1회씩 총 6회 진행되는 과정으로 황금알밀 실습과 축제 추진 워크숍 과정으로 이뤄진다. 구례 골목 빵거리 활성화를 위해 구례 도시재생 어울림한마당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우리밀 빵 축제의 사전 준비과정에 속한다.

교육 전문가로 국립식량과학원의 강천식 박사를 초빙하여 밀의 재배 과정·특성과 제빵 시 유의 사항·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품질 높은 빵을 축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강천식 박사는 "황금알밀이 우리나라 제빵용 품종으로 정착하여 농가 소득향상 및 우리밀로 만든 빵이 식탁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미술포포먼스 '페인터즈' 공연, 내달 장성군 온다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기간인 10월 11일 저녁 7시, 미술 퍼포먼스 공연 '페인터즈'가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페인터즈'는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영상과 춤, 코미디와 결합해 보여주는 신개념 아트 퍼포먼스 공연이다.

공연이 열리는 날이 3년 만에 재개되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10월 8~16일)' 기간과 겹쳐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료는 1인당 5000원으로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입장 가능하다. 예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장성군 공식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예매와 방문, 전화(061-390-8475, 8476) 예매 모두 가능하다.

장성=김수권 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 이창동 정량마을서 3번째 민박간담회

### 주민들 하수종말처리장 고질적 악취 해결 토로



가야산을 등지고 영산강을 바라보는 전혜의 배산임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수종

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을 겪어 온 나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늦은 저녁 윤병

태 시장을 만나 해묵은 고충을 털어냈다.

나주시는 지난 22일 오후 8시 윤곡동 정량마을회관에서 윤병태 시장과 마을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 자리인 민박간담회를 가졌다

고 23일 밝혔다. 반남면 자미, 노안면 감점마을에 이은 3번째이자 첫 동 지역 마을에서 열린 이날 민박간담회는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량마을 선중은 노인회장, 최중구 통장, 노점숙 부녀회장, 김동우 청년회장과 주민 20여명은 윤 시장과 한 시간이 넘는 대화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 축폐 및 분뇨처리장 악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주민 이 모씨는 "축폐, 분뇨의 반입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오랜 기간 주민

들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왔다"라며 "그동안 시설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 수차례 설명회, 간담회가 있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없고 방치돼왔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장치 설치·보강,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지속가능한 시설 주변 조경 및 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이밖에도 '가야산 등산로 공영 주차장 및 체육시설 조성', '정량마을 자전거인포메이션(자전거 휴게소) 유치', '도시가스 보급' 등을 마을 숙원사업으로 제안했다.

대화를 마친 뒤 윤병태 시장은 "오랜 시간 악취를 참고 사달려온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보니 마음이 무겁다"라며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악취 문제만큼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우선의 현안으로 삼아 단계별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 화순군, '시간제 보육 통합 시범사업' 본격 운영

### 어린이집 2곳 4개반 운영...이용 접근성 제고·양육 부담 해소 등 기대

화순군이 시간 단위로 아이를 잠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화순군은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돼 9월부터

시간제 보육 통합형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시간제 보육사업은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가 병원 치료, 취업 준비 등

급한 일이 있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다.

화순군은 화순읍 소재 초록어린이집, 스마일 어린이집 2곳을 통합형 시간제 보육사업 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 2곳은 각각 0세반과 1세반을 통합형 시간제 보육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통합형 시간제 보육사업으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

통합형 시간제 보육사업에 따라 별도의 시간제 독립반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도

미충원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통합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오전반(09시~12시)·오후반(13시~16시)·종일반(10시~15시)을 선택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안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